

어린이날의 비극... 한 가족 일상 휩쓴 ‘화마’

항금연휴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

서호동 빌라 화재로 자녀 2명 포함 일가족 4명 숨져
양돈장 화재 돼지 폐사... 30대 해병서 숨진 채 발견

어린이날까지 이어진 항금연휴기간 제주에서는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오전 3시 52분쯤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빌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숨졌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 집에 살고 있는 A씨(40세) 부부와 네살, 세살 배기 자매 등 모두 4명을 구조해 서귀포의료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치료 도중 모두 사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전 8시 30분부터 화재 현장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4일 서귀포시 대포동의 한 양돈장에서는 화재로 돼지 2300여 마리가 폐사하고, 10억원 가량의 재

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양돈장 돈사 2개 중 A동(3408㎡) 2층 자돈사에서 처음 시작돼 급속도로 연소가 진행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는데 인원 167명, 장비 26대가 투입됐다. 오후 11시 31분 초진을 완료했지만 잔불이 이어지며 화재 발생 9시간만인 5일 오전 5시 40분쯤에야 안전 진화됐다. 이 불로 A동에서 키우던 돼지 2350마리가 폐사했고, A동 2층이 전소되며 소방서 추산 약 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날인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 2명과 부모 등 4명이 숨졌다. 사진은 화재 주택 내부 모습으로, 어린 자매가 놀았을 소형 미끄럼틀과 그네 등 놀이 기구가 화마에 그을린 채 거실에 남겨져 있다. 사진=서귀포소방서 제공

또한 4일 제주도 애월읍 광지해수욕장 해변에서는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중이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4분쯤 광지해수욕장 해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A(30)씨를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

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까지 지인과 술을 마시다 사라졌으며 지인들은 2시간 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해경은 부검을 진행해 A씨의 사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이상민·김도영기자

“민식이법 시행 한달여... 대책 미흡”

강성민 의원 조례 개정 발의
안전시설 확충 등 구체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은 현재 시행 중인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용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도 담겼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5

일부터 시행 중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 CCTV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를 비롯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도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23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지만 민식이법과 관련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이른바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32개소인 9%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어린이 통행 중 위험요소인 주정차관련 단속용 CCTV도 51개소(15%) 정도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엄격한 지도관리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오은지기자

코로나19 확진자 4명 퇴원... 1명 남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4명의 확진자(1번·6번·11번·12번)가 5일 퇴원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른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총 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12명이 퇴원하게 됐다.

현재 격리치료 중인 도내 확진자는 5번 환자 1명으로 건강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온 4명의 환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인 나타나면서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도는 확진자가 퇴원한 후에도 14일 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상 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1번 확진자(대구 방문, 20대 남성)는 2월 21일 확진 판정을 받아 3월 23일 퇴원했으나, 3월 30일 재발

현해 제주의료원으로 입원했으며, 지난달 28일 소개명령 해제로 인해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됐다.

6번 확진자(스페인 방문, 30대 남성, 미국 국적) 또한 재양성 환자로 최초 발현일은 3월 24일이며 4월 17일 퇴원했으나, 퇴원 후 1주일째인 4월 23일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11번 확진자(30대 남성)는 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4월 3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4월 21일 퇴원했으나, 퇴원 후 1주일째인 4월 27일 재검사에서 재양성 판정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에 다시 입원 조치됐다.

12번 확진자(영국 방문, 20대 여성)는 4월 3일 입도해 워크스루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태윤기자

불 탄 성산일출봉, 자연 힘으로 살린다

도세계유산본부 확인 결과
잔디·나무 생육 지장 없어
자연 회복으로 치유 ‘가다’

“화재 발생 구역에 새순...
현장 모니터링 강화할 것”



지난달 화재 당시 불에 탄 성산일출봉 잔디광장의 모습. 사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잔디광장에 대한 복구가 자연치유로 이뤄진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성산일출봉 잔디광장을 복원

하기 위해 문화재청 식생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현장을 확인하고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화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

에 탄 잔디는 뿌리까지 훼손되지 않았고, 또 잔디광장 인근에 있던 소나무도 불에 그을린 정도로 확인돼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잔디를 이식하는 인위적인 복구 방법보다는 식생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향후 예초작업 시 2인 1개 조로 작업반을 편성하고 작업 근로자는 반드시 소화기를 휴대하도록 근무지침을 수립하는 등 화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대책도 마련했다. 고순향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현

장 확인 후 식생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불에 탄 잔디가 자연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화재가 발생한 잔디광장 구역에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등 순조롭게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성산일출봉 잔디광장에서는 풀베기 작업을 하던 예초기 과열로 불이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2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화재로 성산일출봉 일대 잔디 2600㎡와 소나무 수십여 그루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성산일출봉은 2000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2010년 10월에는 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됐다. 이태윤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위
조천 선홍 이장 상대 소송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4일 제주도 조천읍 선홍리 이장인 정

모씨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를 위반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은 지난해 4월 주민총회를 열어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지만 정씨는 지난해 7월 주민들 몰래 사업자인 대명과 7억원의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

했다. 이어 “마을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마을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씨가 직위를 남용해 아무 논의도 없이 뒤집은 것은 선관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hasm@ihalla.com

서귀포 안덕·표선 등 3곳
응급헬기 이착륙장 설치

접근성이 취약한 서귀포지역 3곳에 응급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된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동지역과 안덕·표선면 등 3곳에 심정지·급성심뇌혈관질환·중증외상 등 중증응급질환 발생 시 최단 시간에 이송할 수

있는 이착륙장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내년까지 추진된다.

서귀포보건소 지역의료강화TF는 지난 2월부터 평화로 인근 안덕면과 번영로 인근 표선면, 동지역 관계자와의 면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평화로 인근 안덕면지역 최적 공유지를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현영종기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감굴묘목

아스미 식별 법

묘목엔, 가시가 길다. 열매는 주황색이며, 산이 잘 빠진다(1월 중순~2월 초순 평균 산 0.95) 껍질 벗기기 쉬우며 진물이 나지 않는다. 무겁고 식감이 월등하다(20브릭스 이상 만드는 농가도 있음) 다수확이며, 해거리가 거의 없다. 상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스미가 아닙니다. 아스미는 앞으로 제주 감굴을 대표할 보물입니다. 다른 감굴을 같이 팔아서 이미지 추락을 자초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보물은 소중히 다룰 때 비로소 보물입니다.

유라실생 천혜향 궁천변이 하례조생 한라봉 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모든품종 감굴(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굴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